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5호 / 2017년 03월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TEL | 02-2156-2103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5호 / 2017년 3월

| 발행일 | 2017년 3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김형수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 목 차

### 뉴스&리뷰

#### KVCA 소식

-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 정기총회 및 이사회
- 더벨 벤처캐피탈 대상
- MWC 참관

#### 연수원 소식

- 벤처캐피탈 Basic과정(1차-충청권)
- 제1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 벤처캐피탈연수원 전문 강사 세미나

#### 투자협력·M&A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 M&A 자문기관 간담회
- M&A 매칭데이
- 벤처투자 사랑방

#### 협회장 동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의 중기 정책간담회 참석
- 벤처투자 SUMMIT 참석
- 청년창업사관학교 제6기 졸업식 참석
- 벤처 유관기관 이취임식 참석

#### 회원사 소식

#### 투자유망기업 소개

### 이 슈

#### 2017년 투자유망산업-VR

#### 벤처캐피탈 법률 Q&A

### 시장동향

#### 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VC포커스) 2017년 벤처캐피탈 투자전망

####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01

뉴스&리뷰  
NEWS & REVIEW



## KVCA 소식



##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 3조 1,998억원(전년 대비 17.9% 증가), 벤처 투자액 2조 1,503억원(전년 대비 3.1% 증가)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금년 첫 대규모 행사로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을 2월 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본회가 주관한 이번행사는 창업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규모 벤처투자 컨벤션(투자상담 및 IR)과 대학발 창업 성과 전시, 주요 창업경진대회 통합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최양희 미래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인사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투자자(VC, 엔젤투자자) 등 약 1,1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 KVCA 소식

① 벤처투자 컨벤션



벤처투자 컨벤션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 행사로 지방 중기청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모집된 250개사 중 투자유망기업 40개사의 투자설명회(IR)가 개최되었고 55개의 투자자에게 중소기업 약 200개사가 투자유치 상담을 받았으며, 총 상담횟수는 약 700회에 달한다.

② 대학 창업성과 전시부스 운영



대학 창업성과 전시부스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연구소기업 등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한 우수사례와 창업경진대회 참가팀의 아이템,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대학이 창업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③ 대학 창업팀 경연대회 및 도전! K-스타트업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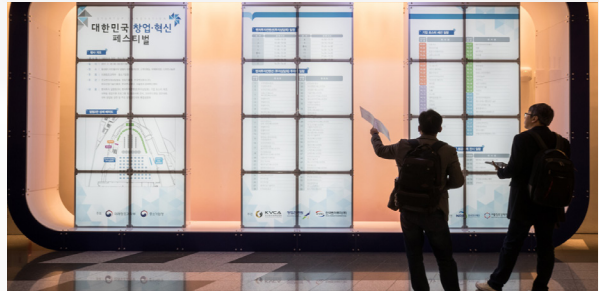


대학 창업팀 경연대회는 창업선도대학 슈퍼스타-V 경진대회, 공공기술 기반 창업탐색사업(한국형 I-Corps) 경연,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기획팀 등 기업발표가 있었다. 본 경연대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학 창업자들이 그동안 갖고 담은 자신의 역량을 외부 기관 및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전! K-스타트업 2017' 등 올해 개최하는 주요한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의 사업설명회도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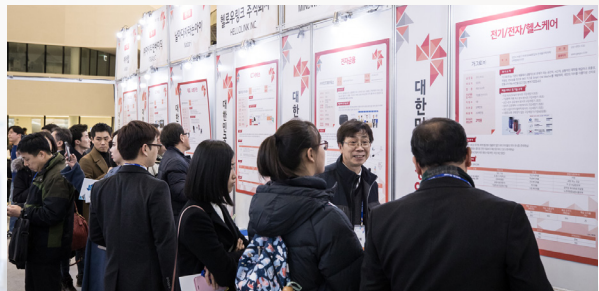
참가 등록



전체 행사일정 현광판



투자 설명회



포스터 세션



투자 상담



투자동향 브리핑



투자상담 격려



창업기업 애로사항 청취



## KVCA 소식

### 정기총회 및 이사회

본회는 2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2일에는 제1차 이사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정기총회 부의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기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2016년도 결산 감사보고,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안), 정관 변경(안), 회비기준 변경(안)이었으며 이어진 이사회를 통해 이용성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고 신규임원 2인을 선임하였다. 엘비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는 이사에서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용성 회장은 “벤처캐피탈의 중흥기는 지금”이라며 “업계가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왔을 때 퀀텀 점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본회의 중점사업으로 정책개발,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한 아젠다 발굴, 홍보기능 강화, 인력수급문제 해결, VC의 글로벌화 및 M&A활성화를 언급하였다. 본격적인 총회 시작전에는 한국거래소의 특장을 통해 최근 IPO 동향 및 상장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신규임원

구 분	성 명	회 사 명
이 사	남기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 사	박희덕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 한국벤처캐피탈 대상



2월 24일 본회와 머니투데이 더벨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등이 후원하였으며 본회 이용성 회장을 비롯하여 성화용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등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회 이용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홍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대상은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차지하였다.

구 분	수상구분		수상자
금융위원장상	Best Venture Capital House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Best Venture Capital House	영화/문화콘텐츠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Best Investment Deal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Best Venture Capital House		스톤브릿지캐피탈
	최우수 심사역		삼성벤처투자 김용민 부장
청년위원장상	Best Venture Capital House	창업초기(일자리창출)	케이큐브벤처스
LP상	Best VC Fund Management House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청장상	Best Venture Capital House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Best Exit Deal		컴퍼니케이파트너스
	Best Venture Capitalist		에이티넵인베스트먼트 황창석 부사장
	최우수투자지원상		케이티비네트워크 정도 상무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상	Best Fundraising House		케이티비네트워크
	Best Investment Deal	중 진	캡스톤파트너스
		바이오	씨케이디창업투자
		게 임	-
	Best Execution House	벤처캐피탈부문	한국투자파트너스
		LLC부문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창업초기부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최우수심사역	중진부문	아주아이비투자 윤창수 상무
		문화콘텐츠부문	대교인베스트먼트 손석인 상무
	Best Innovative House		유티씨인베스트먼트
	Best Private Equity House		스틱인베스트먼트

## MWC 참관



2017 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MWC는 GSM 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행사로, 전세계 주요국 1,900개사가 참여하고 9만여명이 참관하는 전시회다. 본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관단을 꾸려 총 10명이 MWC를 참관하였다. 세계 우수 업체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 연수원 소식

### 벤처캐피탈 Basic 과정 (충청권)

일자 : 2017년 2월 14일 ~ 2월 16일  
(3일 출석)

장소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세미나실



연수원에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초 강의를 희망하는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하여, 올 해 벤처캐피탈 Basic 과정을 신설하였다.

Basic 과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이번 교육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충청권에서 진행했다.

내 용	강 사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이의준
벤처 투자 정책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박용순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단계별 특징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 김현진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교류회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권인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이사 강신혁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신동원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벤처캐피탈과 법률 - 창지법/벤처법 외 마이크로 VC	변호사 이종경
비상장기업 재무 분석	대성창업투자 팀장/회계사 박문수
초기기업 분석 및 투자 사례, Value-Up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IPO 개요 및 절차	하나금융투자 이사 김웅겸
엔젤 투자 개요 ① 매칭펀드 및 지원사업 ② 투자 프로세스 ③ 법규 및 세제	한국엔젤투자협회 부장 서경훈

### 제1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본 교육은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매 2년마다 교육 만기일이 도래하며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 해 윤리교육은 총 3회(2월, 4월, 11월) 개최되며, 2차 교육부터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 : 2017년 2월 21일 (1일 출석)  
장소 :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및 ISSU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동향 및 해외 벤처투자 법령 비교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증건
청탁금지법 및 사례	단국대학교 교수 김래영
VC 준법감시제도 및 사례	한국투자파트너 변호사/팀장 이상화

## 벤처캐피탈연수원 전문 강사 세미나

2016년 한 해 동안 강의했던 연수원 강사를 대상으로, 역삼동 TIPS타운에서 강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의준 연수원장(상근부회장)의 이임사, 강의기법 관련 특강 및 친목도모의 자리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는 강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교육 안내

- 교 육 명: 2017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1차(AR산업 분석)
- 운영 형태: 1일 출석
- 일 자: 3월 16일(목)
- 대 상 자: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 과정 개요: VC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중 수시 진행하는 키포인트 단기 집체교육
- 신청 기한: 3월 8일까지
- 신청 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http://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투자연계 R&D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8일 VR빌딩에서 국내 주요VC, 업종별 특화VC 소속 심사역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중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신규사업으로 본회가 운영기관으로 사업전체를 관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주요내용, 지원사항, 신청·접수방법 등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M&A 활성화지원사업, 벤처투자컨벤션, 금년 벤처캐피탈연수원 주요 프로그램 등 본회 벤처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안내되었다.

2월 28일까지 협회에 접수된 우수기업은 본회가 국내외 VC, 월드클래스300 CEO 등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통해서 1차 평가를 하게 된다. 최종평가는 2분기 중 중기청 R&D전문기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은 R&D지원(2년, 5억원)과 함께 해외마케팅, 인재유입, 디자인, 해외특허 등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 사업 주요내용

- 예 산 : 총 190억원(투자연계형 R&D지원금액 기준, 연계지원 별도)
- 규 모 : ('17)50개 기업 → ('18~)확대 추진



- 지원대상 : 우수 창투사, 특화 VC, 해외 VC 및 지방청 추천기업 중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지원내용 : 최대 2년간, R&D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총사업비의 65%이내)
- 연계지원 :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해외마케팅+인재유입+디자인+해외특허』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구 분	정부 사업			시장주도 사업
	글로벌 멘토링+교육	해외 마케팅	R&D	벤처 펀드
연계 사업	해외 VC, 엑셀러레이터, TIPS 등	수출성공 패키지 (2천만원) GMD 등	투자 연계형 기술개발 (2년, 5억원)	디자인+해외특허+글로벌 인재유입+한·유럽 진출펀드 등
육성 기업	50개 (* 60개 추천기업 중 R&D 수행기관에서 50개 선정)			50개+α (* 글로벌 진출 가능기업 등도 투자)

- 인센티브 : 추천결과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가 뛰어난 VC에 모태펀드 출자시 우대, 추천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

## M&A 활성화 지원사업

### M&A 지원센터 간담회

중소기업청과 본회는 2월 15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M&A 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본회, M&A 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의 M&A 활성화지원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17년도 M&A 활성화지원사업의 주요 추진계획 안내와 M&A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지원센터는 M&A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M&A 뉴스레터 발간을 위한 주요 콘텐츠 및 협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M&A 매칭데이

중소기업청과 본회는 2월 23일 역삼동 GS타워 25층에서 M&A 매칭데이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 자문기관, 지원센터, 벤처캐피탈 등 총 9개사의 M&A 희망 매도·매수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각 매도기업별로 개별 상담실을 제공하여 매수 희망기업과 1:1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수 희망기업으로 참가한 한 상장사는 “관심이 가는 매도기업이 많았으며, M&A 전략, 절차 등 실무적인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 만난 기업 및 자문기관과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 사랑방

투자유치, IPO,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심사역 1:1 상담 매칭프로그램인 벤처투자 사랑방이 지난 2월 21일 개최되었다. 플랫폼기술투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와 여러 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8개사가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준과 달리 투자 프로세스, 펀딩방법 등 투자유치 기본교육 후 상담으로 이어졌다. 벤처투자 사랑방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내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회장 동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책간담회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2월 7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한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업계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간담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기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오찬을 포함하여 약 한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중소기업 현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하고 산자위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벤처투자 SUMMIT 참석

한국벤처투자에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최고실적 재경신을 위한 결의 등을 위해 마련한 벤처투자 SUMMIT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2월 1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VC대표 및 심사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16년도 투자상위 VC 표창, 청장 인사말 이후 실적 재경신 결의가 이어졌다. 이후 17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제6기 졸업식 참석

2월 2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최한 제6기 졸업식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의 청년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기~5기까지 1,215명이 졸업해 총 7,210억원의 매출과 2,681건의 지식재산권, 4,99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6기 졸업생이 지난 1년간에 걸쳐 사업화에 성공한 29개의 우수제품이 졸업식장 로비에 전시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 유관기관 이취임식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벤처 유관기관장의 교체에 따른 이취임식에 두루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건넸다. 21일에는 여성벤처협회, 22일 벤처기업협회, 23일 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28일 이노비즈협회의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이취임식

## 회원사 소식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운용 중인 펀드로 유아용 전동차 업체 디트로네가 발행한 전환전환우선주 3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디에스씨 관계자는 "유아용 완구 시장을 넘어 실버 산업, 전기차 산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는 확장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며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올들어 문화 콘텐츠 펀드를 잇따라 결성하며 투자 재원을 쌓고 있다. 최근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지난달에도 영화전문 펀드인 '마그나영상전문투자조합1호'를 출범하면서 단숨에 2개 펀드를 늘리며 펀드 구성을 다양화했다.

### [미시간벤처캐피탈]

최근 2명의 심사역을 신규 채용하면서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번에 충원된 2명은 각각 드라마 제작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등의 엑셀레이터 역할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한편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임원급 인사를 문화콘텐츠 분야로 전진배치 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SV 한·중 문화-ICT융합펀드'를 통해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매크로그래프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문화콘텐츠와 ICT 기술이 연계된 산업을 주 투자처로 한다.

### [에스비아아이인베스트먼트]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중국 상해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에스비아아이인베스트먼트가 상해 지사 설립을 끝마치면 엘비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케이티비네트워킹에 이어 국내 벤처캐피탈업체 중 네 번째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된다.

### [에스엘인베스트먼트]

'SLi Growth Acceleration' 펀드를 통해 미국 현지 바이오벤처기업인 이뮤노메트(ImmunoMet)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뮤노메트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1종이 최

급 임상준비에 나서면서 신약 출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 [인터베스트]

'SEMA-인터베스트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은 최근 싸이퍼룸이 발행한 2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했다. 유전체 분석기업 싸이퍼룸은 2015년 미국에 설립한 바이오 벤처로 유전체 분석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처음 '유전체 분석기반 약물 적합성 알람 서비스'를 개발했다.

### [지애크벤처투자]

310억원 규모의 '지애크3호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이후 반 년만에 조합결성을 마무리했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정인혁 이사가 맡고 홍충희 대표와 김형석 상무가 핵심 운용인력으로 참여한다.

### [캡스톤파트너스]

'2014 KIF-캡스톤 재도전 IT 투자조합'과 '2015 KIF-캡스톤 K-글로벌 IoT 초기투자조합'을 통해 이스트엔드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스트엔드는 패션 e커머스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선도해 나갈 만한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월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를 통해 코윈디에스티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3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2005년 설립된 코윈디에스티는 레이저 및 광학기술 기반 장비를 개발, 제조해온 전문기업이다.

### [케이티비네트워크]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을 통해 테이크원에게 1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는 개발 중인 신규 '시네마 게임'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로 이뤄졌다.

### [트라메스벤처캐피탈]

신생 벤처캐피탈사인 트라메스벤처캐피탈의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됐다. 2015년 6월에 창투사로 등록된 지 약 1년 반 만의 일이다. 관계자는 "창투사로서 더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라이선스 말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투자유망기업 탐방

이번호에서 소개하는  
투자유망기업은  
소프트웨어용 한글서체  
개발 공급 업체인  
(주)한양정보통신입니다.



### || 세계 일류 ADAS 기업을 향하여

지난 25년간 디지털 한글 및 다국어 폰트를 개발하여 각종 OS와 오피스프로그램은 물론,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에 전 세계문자를 공급해오던 한양정보통신이 2014년, 스마트카 커넥티드 사업 중 하나인 ADAS 솔루션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ADAS 전문 기술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ADAS ONE'이라는 전략적 브랜드를 만들어 이미 북미 및 유럽에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미국 법인명 또한 'ADAS ONE'으로 통일하였다.



<AONE: ADAS All-in-One>

또한 지난 2월에는 ADAS ONE의 이름을 걸고 처음 세상에 나온 제품, AONE이 출시되었다.

AONE은 개인용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하면 ADA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그동안 고가의 자동차 옵션이나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해 왔던 ADAS 제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형태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미 AONE은 지난해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뛰어난 킥스타터 후원자들의 호응을 얻어 펀딩에 성공한 바 있

으며, ADAS 시장에서 한양정보통신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ONE은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잠재 바이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산업 환경에 따른 테스트 및 적응 과정을 거친 후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HM-310: ADAS Mono Camera System>

또한 한양정보통신은 AONE에 이어 트럭 및 버스를 위한 전문 ADAS 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310'이라는 제품명을 가진 이 제품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ADAS 기술이 반영된 형태로 카메라와 스크린이 결합된 디바이스이다. 향상된 ADAS 기능과 더불어 후방 및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까지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HM-310은 After Market에 적합한 제품이면서도, 향후 완성차 업체들을 위한 Before Market 진출에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반자율 주행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HX-510' 역시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급형 스마트카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양정보통신은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ADAS 카메라시스템 개발 주관기업으로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구성(박사 2명, 석사 7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20% 이상을 R&D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등 기술 기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

※ (주)한양정보통신은 협회가 운영하는 2016년도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산업부) 참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역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한양정보통신 장정윤 과장(02-2279-1400 / jennifer@hanyang.co.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 bms@kvca.or.kr)



02

이슈  
ISSUE

## 2017년 VC투자 유망산업

## 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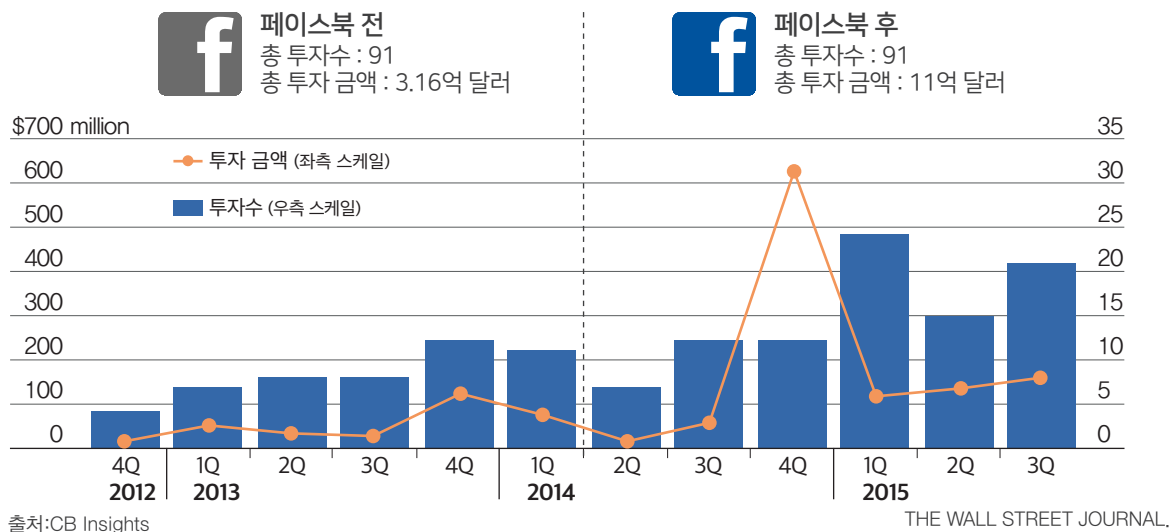
서동일  
볼레 크리에이티브 대표

가상현실(VR)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래하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로 충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CPND (Content - Platform - Network - Device)가 고루 고루 갖춰졌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가상현실은 지금 바로 이 CPND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시발점 앞에 서있다.

2014년 7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2012년 여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어바인(Irvine)이라는 시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었던 오클러스라는 회사를 미화 20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합병을 한다. 그 이후 가상현실 산업은 전 세계 여러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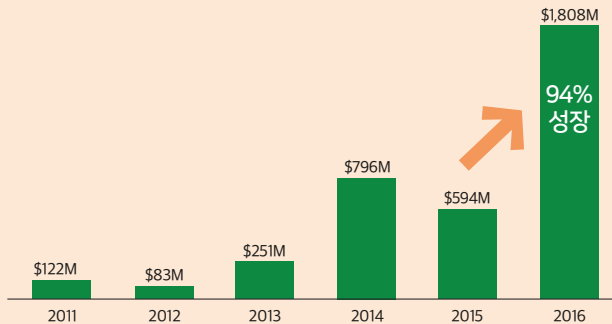


### ■ 새로운 세계에 대한 투자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벤처 투자 (페이스북의 오클러스 인수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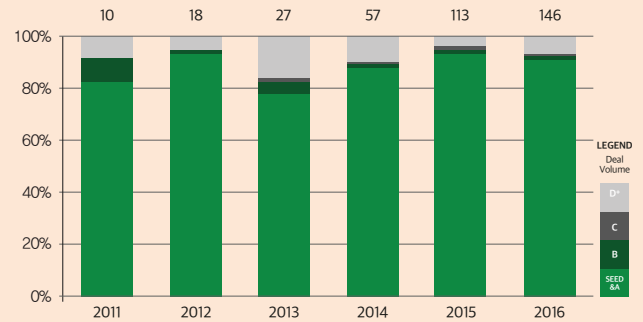




## ① VR/AR VENTURE FUNDING



## ② DEAL DISTRIBUTION 2011-2016









Source : Greenlight Insights Funding Database  
Note : data through December 31, 2016

2015년 4Q는 미국 동부 플로리다 주의 매직 리프(Magic Leap)이라는 증강현실 회사가 받은 5.42억달러의 투자 금액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래프 변동이 심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는 페이스북의 오쿨러스 인수 후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월, 그린라이트 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는 2015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1Q에 또 다시 매직 리프가 7.9억달러의 투자 금액을 받아 전체 투자 금액을 많이 높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2015년 대비 투자 금액은 2015년 대비 94% 이상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사업의 어느 단계에 투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는 초기 투자인 시드나 시리즈 A에 편중되어 있음을 ②번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대중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시점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개화를 위한 CPND 생성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부적인 투자 종목을 보면 가상현실 시장이 아직 얼마나 초기 단계인가를 잘 보여준다. 다음 도표는 2016년에 투자를 받은 종목 중 상위 6개의 딜과 분야에 투자된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 TOP 6 DEALS&CATEGORIES VIRTUAL REALITY 2016

 <b>\$201M</b> <b>HEAD MOUNTED DISPLAYS</b> A computer display you wear on your head.	 <b>\$113M</b> <b>LIVE EVENTS</b> Technology used to stream live events to consumer HMDs.	 <b>\$94M</b> <b>ENTERTAINMENT</b> Non-gaming, non-live entertainment, including movies and UGC.
 <b>\$78M</b> <b>GAMES</b> A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where player can interact with that environment during a game.	 <b>\$59M</b> <b>LOCATION-BASED VR</b> Technology or application in which the gameplay evolves and progresses via a player's location.	 <b>\$24M</b> <b>SOCIAL</b> Public or private communication or media sharing between one or more users.




Source :  
Greenlight  
Insights Funding  
Database

Note : data  
through  
December 31,  
2016

Icons : Nikita  
Golubev: Freepik  
: Simpleicon:and  
Madebyoliver

상기 도표를 보면 아직 소비자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데 필요한 디바이스 부분인 HMD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하드웨어 연구개발의 특성 상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재료비가 많아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소비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오쿨러스와 HTC는 자사가 출시한 기기의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의 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2016년 4Q에 출시한 소니의 PSVR은 자사의 PS4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출시하는 경쟁사보다 반년이나 늦었지만 이미 판매에 있어서는 오쿨러스와 바이브를 합친 수를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이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니가 보유한 다양한 개발사 네트워크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높은 품질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빠르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시장 반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PSVR을 통해 등장한 배트맨 게임과 바이오하자드 게임은 그 완성도에서 많은 게임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판매량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다운로드 수나 시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형 IP인 스타워즈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IP들이 PSVR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VR전문 웹진인 VRN에서 정리한 글로벌 VR 게임 콘텐츠 순위이다.

주간 PSVR 랭킹 Top5						- 2월 4주차	
 미국		 일본		 한국			
1	레지던트 이블7 : 바이오하자드	1	바이오하자드7: 레지던트 이블	1	바이오하자드7: 레지던트 이블		
2	배트맨 :아캄 VR	2	철권 7 [예약]	2	플레이스테이션 VR 월드		
3	언틸 던 : 러쉬 오브 블러드	3	플레이스테이션 VR 월드	3	드라이브클럽 VR		
4	플레이스테이션 VR월드	4	DOAX3 Fortune	4	이글 플라이트		
5	이브 : 발키리	5	RIGS: 머신 컴бат 리그	5	언틸 던 : 러쉬 오브 블러드		
출처 : bestbuy.com		출처 : rakuten.co.jp		출처: danawa.com		출처:VRN	

그 다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분야이다. 가상현실 HMD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두 번째로 많이 투자가 된 분야이다. 이 부분은 향후 모바일용 HMD든 가정용 HMD든 콘텐츠 재생에 있어 네트워크의 스트리밍 기술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HMD나 All-in-One 형태의 HMD에 있어 가장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장매체이고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소비형태는 하드 디스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스트리밍 형태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콘텐츠 역시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상현실 시장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곧 5세대 통신망을 상용화하는데 있어 가상현실 콘텐츠는 차세대 콘텐츠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이동통신회사들은 2020년을 기점으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망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을 현재의 4G망에서 5G망으로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상현실 스트리밍 기술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은 물론 이동통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 다음 주목할 부분은 바로 콘텐츠 분야이다. 비 게임분야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그리고 오락실과 같은 오프라인 VR 체험 센터에 투자된 금액을 합하면 2.31억 달러나 된다. 이는 가상현실 기기가 대중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콘텐츠임을 증명한다. 아무리 기기가 뛰어나고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콘텐츠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이미 자사 제품에 360 영상을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가상현실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360 영상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역시 UGC (User Generated Content: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기어 360이라는 카메라를 갤럭시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로 출시했다. HTC는 콘텐츠 유통 파트너로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게임회사 밸브(Valve)의 스팀(Steam)이라는 전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을 채택했는데 스팀을 통해 판매되는 게임 중에는 한달 매출이 이미 10억이 넘어가는 타이틀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VR 전문 웹진인 VRN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팀에서 제공하는 상위 70개의 예상 매출 분석을 해본 결과 4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스팀의 VR게임 다운로드 시장만 약 700억에서 1,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게임명	가 격	유저수	예상매출
tilt brush	32,000	171,116	5,475,712,000
Raw Date	43,000	69,535	2,990,005,000
The Solus Project	21,000	114,965	2,414,265,000
Redout	38,000	63,133	2,399,054,000
Audioshield	21,000	97,349	2,044,329,000
The Gallery - Episode 1 : Call of the Starsedd	21,000	84,987	1,784,727,000
VANISHING REALMS	21,000	84,325	1,784,727,000
Space Pirate trainer	16,000	101,764	1,628,224,000
Zombie Training Simulater	21,000	63,919	1,342,299,000

출처:VRN

여기에 오쿨러스의 콘텐츠 유통망인 오쿨러스 셰어(Oculus Share)와 소니의 PSN 및 오프라인 유통망을 합하면 1,000 억원은 충분히 넘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전 세계 게임 시장이 91조원인 것에 비하면 VR 게임은 아직 0.1%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미 대형 게임사들이 자사의 유명한 게임 IP를 VR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HTC는 자사의 게임 유통 플랫폼 강화를 위해 각각 게임 분야에 2.5억 달러와 1억 달러의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한 만큼 2017년은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게임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2016년부터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가상현실 체험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가상현실 HMD들의 확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더 나아가 수익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아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매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도는 2017년에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미국 LA에서 시작된 IMAX VR를 비롯하여 VOID, Viveland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롯데월드를 비롯하여 유수의 놀이공원에서는 가상현실 기기를 놀이기구에 적용하여 가상현실 체험존을 늘리고 있다.

가상현실 시장은 아직 절대적 강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점이다. 오쿨러스, HTC 그리고 소니가 하이엔드급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삼성과 구글이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바이스 시장은 중국 수많은 제조사에서 나온 기기들과 미국의 대기업 제품들 그리고 일본의 소니와 FOVE 등으

로 파편화가 심한 상태이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은 통폐합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통폐합 과정의 승자는 결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가 될 것이고 이 중 킬러 콘텐츠의 확보는 디바이스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회사들은 새롭게 도래할 5G 통신망을 활용할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기에 가상현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현 세대의 4G 망은 이미 수확체감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현실 시장의 성공여부는 하드웨어의 발전보다는 콘텐츠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기기라고 하여도 소비자의 지갑은 콘텐츠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이 3D TV의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즐길만한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콘텐츠 투자는 두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국시장의 인력 구성이나 특성상 한국이 가상현실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뿐이다. 가상현실 HMD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은 원천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의 소규모 회사가 진행하기에는 인력 풀도 적고 현재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과 인력들과 비교하면 이미 뛰어돌기에는 장벽이 높다.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지 않다. 따라서, 싫으나 좋으나 한국의 가상현실 투자는 콘텐츠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가상현실은 시간과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지불해야 했던 많은 비효율적인 생산성 부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해외의 대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트렌드에 한국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벤처캐피탈 법률 Q&A

Q.

[무상취득 주식의 소각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무상취득한 주식을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

1.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절차에 의하여만 소각이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실무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무부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 회신 인용-

1. 귀하께서 우리 부에 보내주신 민원(1AA-1701-033429)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주식 소각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반드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4. 이하 생략.

Q.

[조합원의 지위에서 배분받을  
금전채권의 양도성]

창투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  
에서 장래에 배분받을 금전채권  
(잔여재산분배채권, 청산 배당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민법 상 조합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이기는 하나, 『가. 조합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잔여재산이 금전으로 남아 있고, 더구나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분배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도 가능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을 요할 것이나 조합의 존속기간이 장기로 남아있고, 특히 투자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장래의 배분받을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도 요건의 충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실무적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의 채권자로부터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에 대하여 갖는 장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는 조합으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추후 청산시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03

시장동향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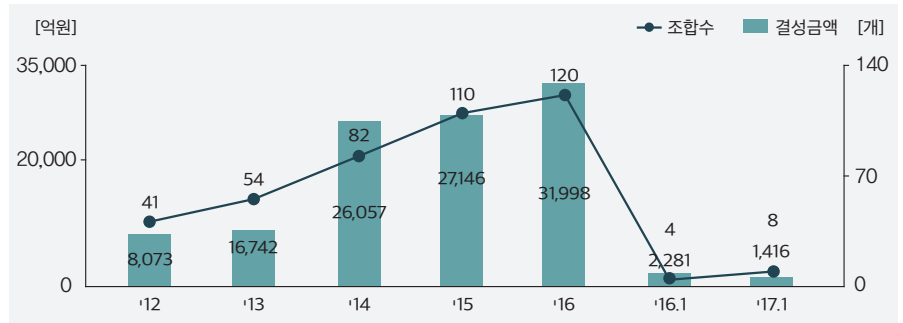
## 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017년 1월에 창업초기펀드 2개, IT펀드 2개, 바이오 펀드 1개를 포함한 8개 조합(창투조합 8개)이 1,416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총 107건(82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751억원으로 전년 동월(1,319억원) 대비 569억원(43.1%) 감소
-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34.1%

### 투자자원

#### ■ 조합결성

▷ 금년 1월까지 8개 조합, 1,416억원이 결성되어 전년 동기(4개 조합, 2,281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4개(100.0%) 증가, 결성 금액은 865억원(37.9%) 감소하였다.



####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1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일반법인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성장사다리를 포함한 기타단체 31.1%, 금융기관 18.6%, 벤처캐피탈 13.5%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81.6%로 전년 동기(63.2%) 대비 18.4%p 증가하였다.

[단위 : %]

조합원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	2017.1
정책기관 (모태펀드)	32.8 (24.9)	32.8 (31.6)	16.5 (14.4)	31.7 (23.6)	25.4 (18.9)	15.4 (15.4)	0.0 (0.0)
금융기관 (산은/정금)	19.9 (7.4)	26.6 (16.3)	22.3 (12.3)	22.6 (4.1)	25.3 (6.9)	51.4 (9.2)	18.6 (0.0)
연금/공제회 (국민연금)	10.9 (7.4)	8.4 (4.8)	20.3 (9.9)	4.2 (1.0)	9.8 (6.3)	0.0 (0.0)	0.0 (0.0)
벤처캐피탈	19.6	13.2	11.4	11.5	14.0	18.9	13.5
일반법인	11.8	14.9	9.8	14.0	14.0	11.4	35.3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1.6 (0.0)	1.0 (0.0)	13.1 (11.4)	10.4 (9.2)	8.6 (4.5)	0.9 (0.0)	31.1 (18.4)
개 인	0.9	1.8	3.4	3.5	1.9	2.0	1.5
외국인	2.5	1.3	3.2	2.1	1.0	0.0	0.0



# 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 1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스톤브릿지 -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벤처기업 후속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스톤브릿지성장디딤돌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8월 한국성장금융의 ‘초기기업 팔로우온(Follow-on) 투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최초 투자를 받은 초기기업들이 후속 투자자금 조달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시에 필요 자금을 지원 하도록 설계됐다.
- 알바트로스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평가펀드(투자용TCB펀드) 인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를 결성했다. TCB펀드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용 TCB 기술등급' 상위 5등급(T5)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나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된다.
- 유안타 -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300억원 규모의 한국IT펀드(KIF)투자조합인 ‘2016 KIF-유안타 IC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중점투자분야는 신산업 ICT로 소프트웨어부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예정이다.

▷ 2017년 1월까지 8개의 조합이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창업초기펀드 2개, IT펀드 2개, 바이오 펀드 1개 등이다.

▷ 결성금액별로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스톤브릿지성장디딤돌투자조합’이 320억원으로 가장 컸고,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의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유안타인베스트먼트의 ‘2016 KIF-유안타 ICT전문투자조합’이 각각 300억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ICT융합펀드	192	일반	IT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바이오헬스케어펀드	152	일반	바이오
스톤브릿지캐피탈	창투조합	스톤브릿지성장디딤돌투자조합	32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중소벤처기업생성펀드 II	102	일반	중소/벤처일반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솔루션캐피탈제2호투자조합	3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3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창투조합	보스톤 성장지원 2호 투자조합	20	일반	중소/벤처일반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2016 KIF-유안타 ICT전문투자조합	300	일반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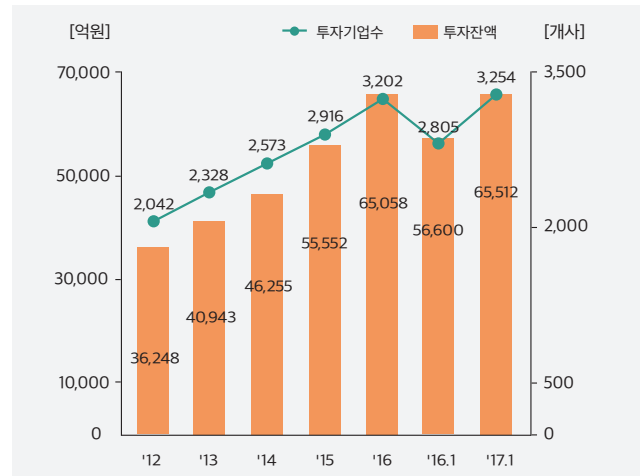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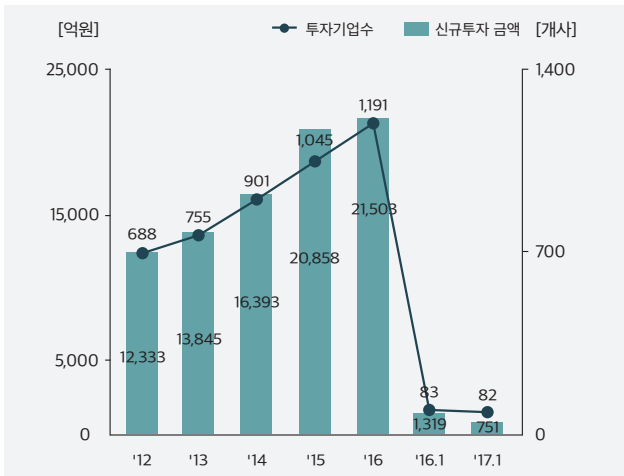
## 신규투자

###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금년 1월까지 신규투자는 751억원으로 전년 동기(1,319억원)보다 43.1% 감소하였고, 투자업체수는 82개사로 전년 동기(83개사) 대비 1.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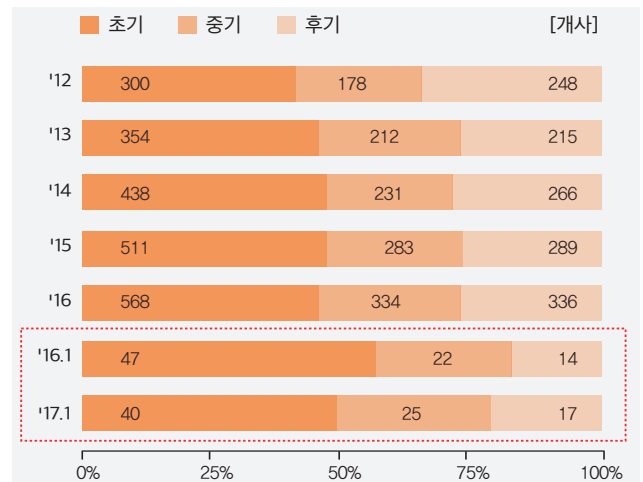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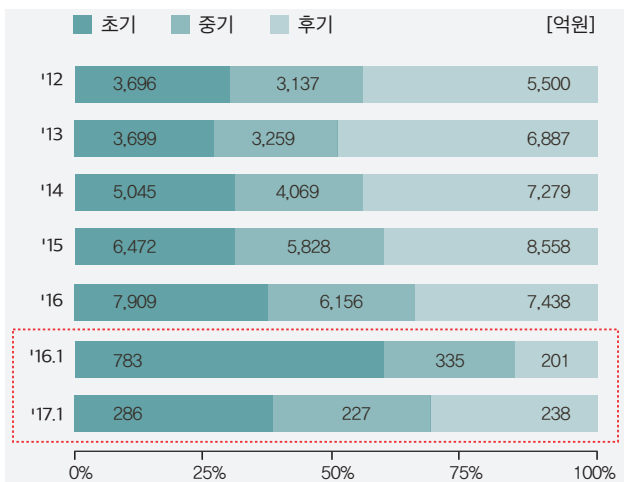
▷ 1월에는 덕우전자가 7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비비씨, 글로벌네트웍스, 파수닷컴, 드림스킨코리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월까지 3,254개 업체에 6조 5,51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월까지 금액기준으로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후기기업 30.3%, 중기기업 31.6% 순으로 투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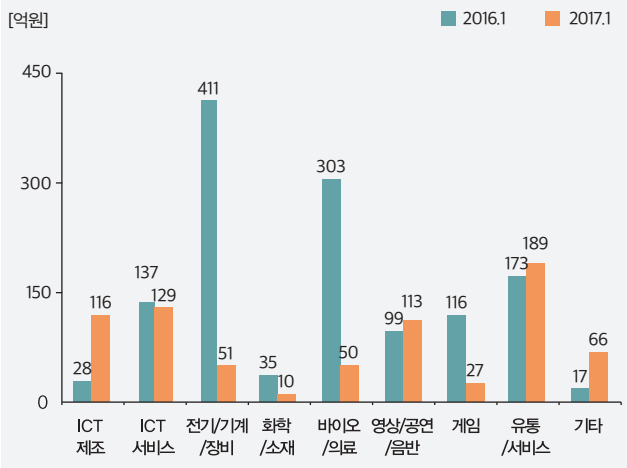
# 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189억원, ICT서비스 129억원, ICT제조 116억원, 영상/공연/음반 113억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ICT제조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전기/기계/장비 분야는 360억원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	2017.1
ICT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28	116
ICT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137	129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411	51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35	10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303	50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99	113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116	27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173	189
기 타	342	593	616	1,668	1,570	17	66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319	751



##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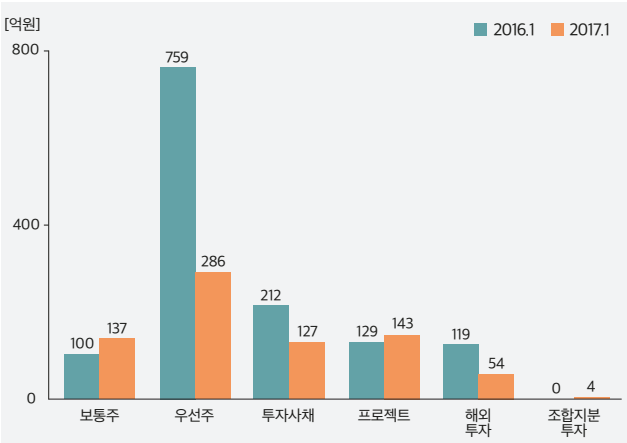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286억원으로 전체투자의 38.0%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젝트가 143억원으로 19.1%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감소하였다.

▷ 보통주의 투자가 전년 동기(7.6%) 대비 18.2%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9.1%로 전년 동기(31.1%) 대비 9.4%p 증가하였다. 반면 우선주 투자 비중은 38.0%로 전년 동기(57.5%) 대비 19.5%p 감소하였다.

▷ 지역별로는 서울(49.9%)을 비롯한 수도권(73.2%)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11.5%, 5대광역시 8.1%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도 4개사 54억원(7.2%)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	2017.1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100	137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759	286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212	127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129	143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110	54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0	4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319	751





## 투자회수

## ■ 유형별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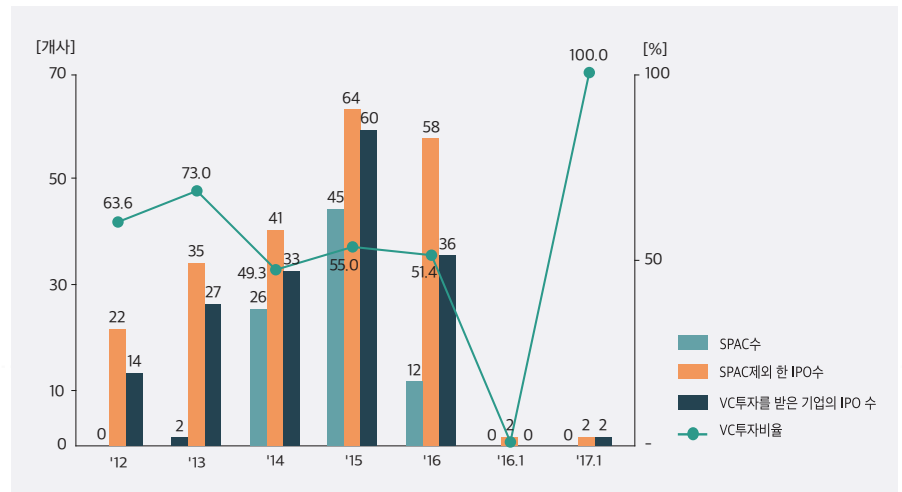
▷ 1월까지 회수원금은 484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35.3%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34.1%, IPO 22.0%였다.

▷ 특히, 1월은 프로젝트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265건의 거래를 통해 16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한국영화(일반+중저예산)를 통한 회수가 144억원(8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콘서트 7억원(4.3%)이었다.

▷ 1월에는 코스닥시장에 2개사(유바이오로직스, 서플러스글로벌)가 상장되었으며, 2개사 모두 VC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	2017.1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89	106
M&A	72	22	163	150	329	2	17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53	165
장외매각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161	159
	채권	1,165	1,025	1,311	1,614	9	12
기 타	188	736	217	342	476	1	25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615	484



## 투자재원

## 총 계

'17년도 조합결성은 '16년(120개, 3조 1,998억원) 대비 소폭 증가한 130개, 3조 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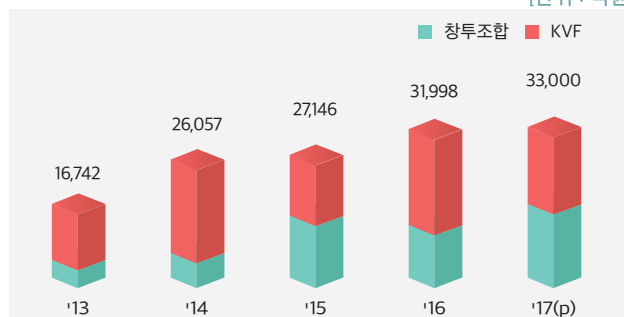
· 회사당 평균 1.5개의 신규조합 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 회사의 45.7%가 금년 2개 이상의 신규조합 결성 예정

※ 한편, 응답회사의 15.4%는 조합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6년도는 KVF의 결성비율이 높았으며, '17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KVF vs 창투조합의 결성비율이 5.5:4.5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됨

2017년 조합결성 전망

[단위 : 억원]



## 출자자

신규조합 결성에서 정책기관의 비중이 2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연금/공제회, 일반법인 순으로 집계

·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출자와 신규출자 공제회 유입이 기대되면서 '17년도에는 연금/공제회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PEF 출자자는 연금/공제회가 26.2%, 금융기관이 25.7%

신규결성조합 출자자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p)
정책기관	32.8	16.5	31.7	25.4	27.9
금융기관	26.6	22.3	22.6	25.3	21.2
연금/공제회	8.4	20.3	4.2	9.8	19.3
벤처캐피탈	13.2	11.4	11.5	14.0	7.9
일반법인	14.9	9.8	14.0	14.0	15.2
개인	1.8	3.4	3.5	1.9	1.0
기타단체	1.0	13.1	10.4	8.6	3.3
외국인	1.3	3.2	2.1	1.0	4.2

##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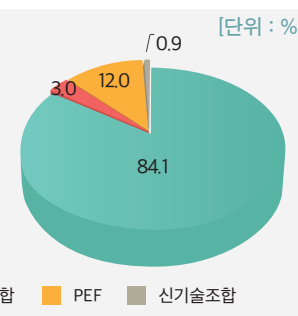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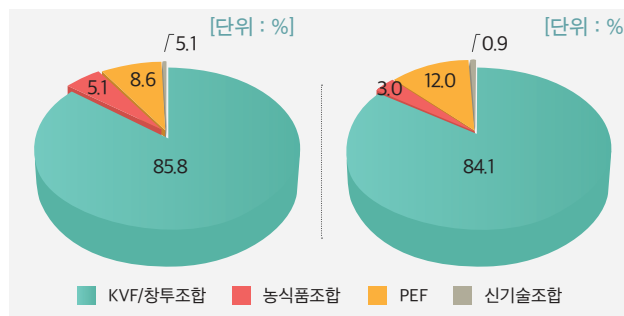
KVF/창투조합이 조합수 기준으로 85.8%, 금액기준으로는 84.1% 수준에서 결성될 것으로 보임

· 신규 결성조합 유형은 벤처조합 내에서 조합수 기준으로 창투조합이 61.5%, KVF가 38.5% 결성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KVF가 54.7%, 창투조합이 45.3% 결성될 것으로 조사됨

· PEF와 농식품조합, 신기술조합을 포함할 경우 금액기준으로 창투조합/KVF가 84.1%, PEF가 12.0%로 조사됨

조합유형별 전망(조합수기준)

조합유형별 전망(금액기준)



## 분야별

조합의 유형은 중소/벤처분야의 결성계획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econdary, 문화, 초기기업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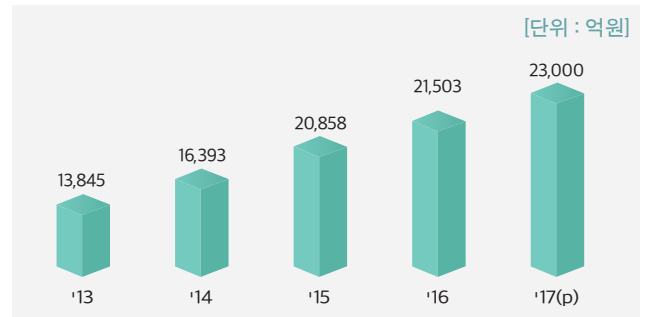
## 신규투자

### 총 계

'17년 신규투자는 지난해(2조 1,503억원)보다 상승한 2조 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신규 결성 조합규모가 3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투자를 위한 풍부한 자원 보유,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정책 및 민간 VC출자 참여확대 등으로 '17년도에도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6년 한 해 동안 13개의 창투사가 신규 등록되어 작년대비 5개의 창투사가 순증하면서 VC투자의 저변확대 등 '17년도 투자증가의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조사결과, 회사당 평균 14.9개 기업에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6년도 초기기업 투자의 증가에 이어 '17년도에도 투자기업 수 1,000 개사 돌파 예상

2017년 신규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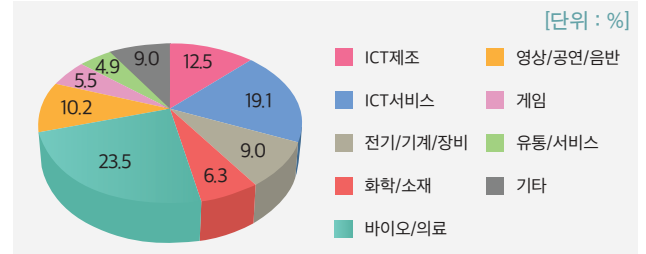


### 업종별

'16년도 강세 업종인 바이오/의료(23.5%)가 '17년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CT서비스(19.1%)도 높은 투자 기대

- 반면, ICT제조, 게임분야는 '14년 이후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며 영상/공연/음반 등 콘텐츠 관련 투자도 2년 연속 감소추세
-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등 전통제조업의 경우에는 올해 반등에 성공하였으며,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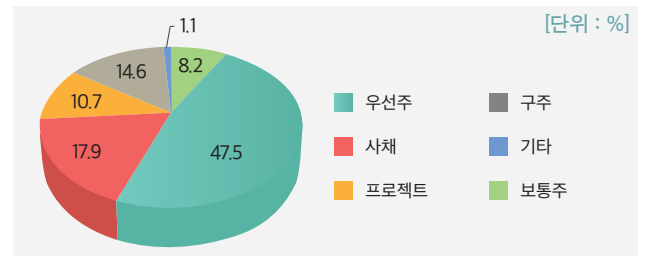
업종별 신규투자



### 유형별

최근의 추세와 같이 우선주 투자(47.5%)를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보통주를 포함한 주식투자가 55.7%로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

업종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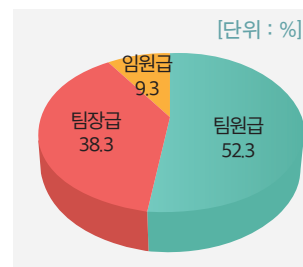


## 신규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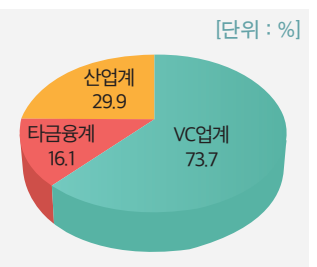
78.3%의 벤처캐피탈은 금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으며, 회사당 평균 채용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수준

- 85.0%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으로는 VC업계 출신(73.7%), 직급별로는 팀원급(52.3%)을 고려

직급별 신규채용 인력



경력별 신규채용 인력





##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의 2017년 정시 및 수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다. 정시는 3,8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결성목표액은 6,786억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는 2월 22일에 정시 및 수시출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목표액
중 진	청년창업	400	668
	엑셀러레이팅	210	350
	고급기술인력창업	700	1,169
	여성기업	100	150
	스몰 M&A 매칭	200	400
	해외진출	300	750
	소 계	1,910	3,487
특 허	특허기술사업화	200	300
문 화	방송·드라마	300	500
	콘텐츠기업육성	300	600
	NEW 콘텐츠	100	200
	소액투자전문	200	300
	소 계	900	1,600
미 래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80	120
	가상·증강현실(VR·AR)	120	240
	소 계	200	360
영 화	중저예산한국영화주1)	280	48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주2)	170	289
관 광	관광산업육성	150	270
계		3,810	6,786

주1) 영화계정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는 2개 조합 선정 예정 (결성목표액 240억원, 모태출자예정액 140억원 X 2개)

주2)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육성 분야는 2개 조합 선정 예정

(결성목표액 170억원, 모태출자예정액 100억원/ 결성목표액 119억원, 모태출자예정액 70억원)

#### ■ 한국모태펀드 수시출자사업 계획

계 정	분 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결성목표액
중 진	M&A	M&A 및 Buyout 등을 위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10%
	세컨더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10%
	KVF결성목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단, 약정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모태펀드 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10억원 이내
문 화	문화산업투자 KVF결성목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 1항에 따라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단, 약정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모태펀드 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함	10억원 이내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작년 12월 말 제안서를 접수 받아, 올해 1월 말까지 프리젠테이션을 비롯한 내부 평가, 운용사 실사 등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의 VC분야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100억원), 케이티비네트워크(100억원), 네오플렉스(100억원), 프리미어파트너스(50억원), 메디치인베스트먼트(50억원)이다. PEF분야 3곳까지 포함하여 총 1,200억원을 출자를 확약하였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코넥스 활성화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4군데 위탁운용사를 숏리스트(예비적격운용사)에 올렸다. 제안서를 제출한 8곳 중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엠지인베스트먼트 등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4곳의 운용사는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구술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이중 2곳이 최종 운용사로 선정된다. 성장금융은 운용사 2곳에 최소 운용규모 600억원(각 300억원)의 50%인 300억원(운용사별 15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한국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2개 운용사가 선정되는 중소·벤처분야에는 총 450억원이 출자돼 최소 500억원 규모의 펀드 2개가 조성된다. LP인 성장사다리펀드가 300억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50억원,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2월 7일 출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펀드 운용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발표되고 6월 최종 선정된다.

## 건설공제회

설립이후 첫 번째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공제회는 PE와 VC 부문으로 나눠 각각 최대 2곳, 4곳씩 총 6곳 이내의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규모 1,000억원을 기준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해 선정되는 VC 위탁운용 부문에서는 각각 2곳씩 최대 4곳의 운용사가 선정된다. 대형사의 경우 각각 100억원 이내에서 총 200억원 이내, 중소형사는 각각 5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다. 접수는 24일에 마감하였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3월 8일 숏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3월 중 현장실사와 4월 초 구술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전력

2월 28일 한국전력의 에너지신산업 펀드가 출자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출범에 나섰다. 에너지신산업 펀드는 한국전력이 출자한 펀드로 현재 5,000억 원이 설정돼 있다. 운용은 지난해 설립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맡는다. 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자펀드 출자사업은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와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두 분야로 나뉜다. 초기기업 펀드는 2개사를 선정해 각각 최대 30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성장기업 펀드는 2개사를 선정해 총 750억 원을 출자한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20일에 마감하고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2차 구술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http://www.kvca.or.kr)